

요한복음 11장 1-16절 말씀

- 01 어떤 병자가 있으니
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아에 사는 나사로라
- 0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
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
- 03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
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
- 04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
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
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
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함이라 하시더라
- 05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
- 06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유하시고
- 07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
- 08 제자들이 말하되
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?
- 0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
낮이 열 두시간이 아니냐?
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
- 10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고로 실족하느니라
- 11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
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
- 12 제자들이 이르되
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
- 13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
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줄 생각하는지라
- 14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
나사로가 죽었느니라
- 15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
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라
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
- 16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
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